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5장 다같이

1.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는 구원하여 주소서
2.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침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3.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4.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전도서 1:7-8 인도자

설 교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 전도통합예배 때에 전도대상자들이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3. 세상의 분열과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전도서 1:7-8

가을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는 것이 좋다. 소위 지혜서이기도 한데, 특별히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씀이다. 서두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외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 솔로몬은 권력, 지혜, 재산, 부귀영화, 육체적 향락, 인기 등 평생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것 다 해 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도달하자 인생의 헛됨을 탄식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근본적 불만족 때문이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1:7-8). 새 차를 샀을 때 처음에는 무척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딘가? 한 달? 당신이 차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집은 어떠한가? 일 년? 당신이 그 집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부어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2달러도 안 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은 물질 가치를 초월한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 그는 물질이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당신도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성공의 저주를 맞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부자는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알고 있었다. 물론 식욕, 수면욕, 성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지적 욕구 등 욕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욕망을 타도하자는 금욕도 아니지만 욕망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은 영성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욕망을 통해 우리는 고차원 것으로 채움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부각된다. 아놀드 토인비는 “모든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파스칼은 “하나님은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인간 안에 만드셨다”라고 했다. 어거스틴은 “주여 내가 당신을 마음에 모시기까지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고통과 허무함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마음의 자리는 늘 허전한 것이다. 공허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다. ▶행복, 구원, 사랑, 생명 등 모두 안에서 잃은 것인데 왜 밖에서 찾으려 하는가?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에서, 한 농부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밟는 땅을 갖기로 약속을 받고 걸었다. 하지만 과욕 탓에 죽고 말았다. 그는 한 폐기의 땅에 묻히고 말았다. 욕망을 아무리 크게 가져 봐야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시신을 눕힐 좁은 땅뿐이다. ▶이제부터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현세의 가치 대신 영원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광세》를 쓴 수학자 파스칼은 신 존재 여부와 내세의 존재 여부를 확실히 실증할 수는 없다고 해도, 현명한 인간이라면 신과 내세의 존재를 긍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불신 생활을 하는 편보다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증명했다.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자기 신앙의 이유에 대해 “그것이 최고로 수지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성공과 성취와 경쟁과 개인주의’라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의미와 사명과 헌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주의’라는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다.